

지방의 선택! 희망 2007

한나라 대선후보 지방분권정책 분석

엑스포 유치 결정 D-100

① 60표를 확보하라

분권에 공감... 각론은 '온도차'

한국지방신문협·지방분권운동 공동 '빅2' 조심스런 접근...원 후보 가장 적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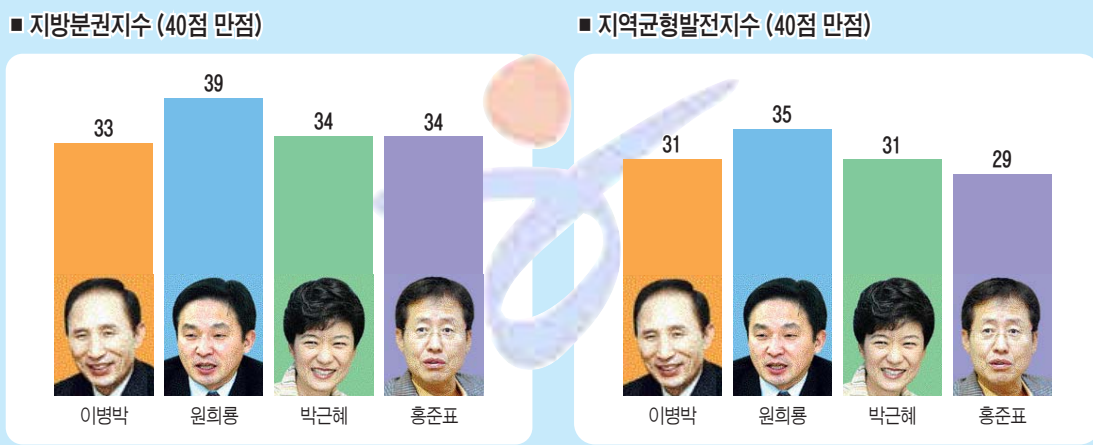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를 앞
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경선후
보들이 지방분권 신설이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 정책에 대해 상당한 인식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4명 중 원희룡 후보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반면, 홍준표 후보는 상
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
식 부산대 교수)과 광주일보·부산일
보·매일신문 등 전국 주요 지방일간
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최승익 강원일보 회장)는 지난 6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4명에게 지방분
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 그들의 답변을 비교
분석했다.

정책질서는 ▲지방분권(중앙권한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주재
원 확대, 지방세 신설 등) ▲지역균형



발전(지방대학 경제 문화 의료 언론
등 육성방안) 등 2개 분야 모두 33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분석 결과 원 후보가 모든 분야에
서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이명박, 박
근혜 후보는 기초의원 등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세 신설 등에서 조심스런
접근을 했다. 홍 후보는 여러 정책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각 분야별 속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문항 10개씩을 선정, 각 문항별
로 1~4점(분권화 및 지역균형발전
에 가장 긍정 4점, 가장 부정 1점)으로 서
얼 정도를 매겨 합산(40점 만점)한 결
과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원 후보가 39
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박, 홍 후보는 각각 34점, 이 후보는
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도 원 후보는
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 박 후보는
각각 31점, 홍 후보는 29점의 분포를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 2면으로 계속

'검은 목요일' 주가 사상 최대 폭락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주
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사이드카란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코스피시장에선 5% 이
상, 코스닥시장에선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
될 경우 5분간 모든 거래를 중
지시킨다. 서킷브레이커는
10%를 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20분간 주식거래
를 중단시킨다.

125P 하락 1700선 붕괴...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
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깊
어지면서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증시
가 동반 폭락했다. 특히 16일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대 일중 낙폭 기록을
걸어치웠다. (관련기사 3·9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낙폭
을 136.18(7.49%)까지 확대해 1681.
71까지 떨어졌다. 전날보다 125.91포
인트(6.93%) 내린 1,691.98으로 마
감했다. 종전 일중 최대 낙폭 기록은

2000년 4월17일 기록한 93.17로 코스
피지수 일중 낙폭이 세 자리수를 기
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관이 1조4천977억원이나
매수했으나 외국인도 사상 최대인 1
조554억원어치를 순매도해 지수 낙
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77.85포인트
(10.15%) 하락한 689.07로 마감해 일
중 하락폭이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코
스닥지수 일중 하락률은 2001년 9월

12일 기록한 11.59%가 사상 최대며,
이날 코스닥지수의 일중 하락률은 6
년 만에 최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사이
드카 발동에 이어 오후에는 서킷 브레
이커까지 발동됐으나 커지는 낙폭을
줄이지는 못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우림국민청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ur.ac.kr
진남과학대학
http://www.jinam.ac.kr



오는 19일로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D-100일을 맞는 가운데 16일 여수에서 열린 '해안로즈산업의 육성 과제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2012 여수엑스포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위경리기자 jrwi@kwangju.co.kr

결선투표 대비 유럽표 공략을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오는 19일 100일 앞으로 다가
온다. 2012 엑스포 유치 도시는 오는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에서 가려진다. 2012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략과 요건을 살펴본다.

■ BIE 회원국 분포

지역	회원국 수
유럽	36
아메리카	26
아프리카	23
아시아	16
합계	101

※2007신규가입: 시리아, 파키스탄, 에콰도르

모로코 '꿈수'...1차서 3분의 2 힘들 듯

◇결선투표 대비해야=2012 엑
스포 개최지는 16일 현재 BIE에
가입돼 있는 101개 회원국 대표의
투표로 선정된다. 101개 회원국은
유럽이 36개국으로 가장 많고, 미
주 26, 아프리카 23, 아시아 16개
나라다. 1차에서 한 도시가 3분의
2를 득표하지 못하면 상위 2개 도
시가 결선 투표를 치러 다수 표를
얻은 곳이 개최권을 얻는다.
한국(여수)을 비롯해 모로코(탕
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 등 3개
국이 벌이는 2012 엑스포 유치 경
합은 표의 분산으로 어느 한 도시
가 1차에서 3분의 2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2차 투표에서 판기를
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가정 아래 신청국 및 1차
탈락국도 참여가 가능한 결선 투표

에 회원국 모두 동참할 경우 최소
51표를 얻어야 2012 엑스포 개최권
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한
국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60표
이상 확보를 목표로 가장 많은 회원
국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에 대한 외
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일원이지만
국가적 역량으로 볼 때 권역 국
가들의 공동지지 선언을 이끌어내
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한국이
2차 투표에서 모로코를 제치려면
지금부터 가장 많은 회원국을 보
유하고 있는 유럽에 대한 외교력
강화가 급선무라는 진단이다.
◇모로코 신신헌정 파기=2012
엑스포 유치전에서 모로코의 대시
가 뜨겁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
륙 최초의 국제행사 개최라는 명

분과 함께 이
슬람권의 단
합을 호소하
며 한국을 추
격하고 있다.
더욱이 자
신과 가까운
나라들을 새
회원으로 가입시켜 지지세를 확
산하며 초기 우세를 유지했던 여
수에 가까워 졌다는 평가다. 최근
시리아 파키스탄, 에콰도르 등이
모로코의 권유로 BIE에 가입했다
는 분석이 나오는가하면, 이집트
등 2개 국가도 가입을 준비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경쟁국
들은 지지국가의 회원 가입을 부
추기지 않는다는 신신헌정을 맺은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는 없는 틈을 타 모로코가 '꿈수'를
부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이슬람권의 강력한 지지
세를 바탕으로 추격전을 펴고 있
는 모로코는 2012 여수엑스포 유
치를 위해 끝까지 긴장을 유지해
야 할 경제 대상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국민은행의 국민은행 "국민 좋은 의정 사행" 캠페인
재미: '소비자가 많은 좋은 광고'를 추구합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족제비로 인신-수유기 병용 성분
- 배아 추출물, 소년기
- 뉴약, 인조과일, 관해, 이명증
- 알코올, 피부병, 동맥 질환, 세균성
- 기미, 주근깨, 눈화, 인공물
비율할 방법
- 알코올, 알콜, 알콜, 알콜, 알콜
중심의 원화! 이며, 인공물,
수출제일 수출제일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www.kyocofarm.co.kr
고객콜센터(주말·휴일) 080-022-2200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특효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었고 해결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